

# 억남이의 보물 열매



## 리 완 기

가래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있는 가래산이 있었습니다.

가래산이 유명해서인지 가래산기슭의 마을은 가래마을, 가래산밑의 별도 가래별로 불리웠으며 벌을 감도는 개울은 가래천으로 불리웠습니다.

이 가래산마을의 가래벌을 억남이와 정만이라는 두 젊은이들이 가꾸고있었습니다. 그들의 논은 가래천을 사이두고 있었습니다.

억남이와 정만이는 땀흘리며 일을 하다가도 쉴참이면 가래천에서 가끔 만나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더 기름지게 가꿀가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어느해 억남이와 정만이는 올해농사를 본때있게 지어보자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벌을 떠날줄 몰랐습니다.

요즘 억남이는 사기가 났습니다. 암만해도 올해농사를 자기가 더 잘 지을게 뻔했으니까요.

그것은 억남이가 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보물가래열매를 물려받았기때문이였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가래산기슭에 살면서 농사일도 부지런히 하고 산을 가꾸는 일도 극성스럽게 하는 억남이네 조상할아버지들의 수고에 감동된 가래나무할아버지가 주었다는 보물가래열매는 무슨 소원이든 말만 하면 제격 들어주는 귀한 보물이였습니다.

오늘도 억남이는 밥사발크기만 한 보물

가래열매를 앞에 놓고 입을 다물줄 몰랐습니다.

무지개빛이 령롱한 보물가래열매는 보고 또 봐도 싫지 않았습니다.

보물가래열매를 넘겨주며 하시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지금도 억남이의 귀가에 쟁쟁했습니다.

《난 이젠 늙었으니 이 보물가래열매를 네가 간수하거라. 벌을 가꾸면서 정 피치 못할 일이 생기면 이 열매에게 부탁하거라. 어두운 저녁에 가래곶에 난 구멍을 들여다보면서 일거리를 부탁하면 풀어줄게다. 그러나 이 보물열매를 망탕 써서는 안되느니라. 이 아버지도 뜻하지 않은 메뚜기떼가 가래벌에 덮쳐들었을 때 딱 한번 도움을 받았단다. 가래산과 가래벌을 잘 가꾸길 바라는 우리 집안의 부탁으로 알고 보물가래열매를 잘 간수하거라.》

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기며 보물가래열매를 쏘어보는 억남이의 마음은 흐뭇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 보물만 있으면 농사일은 걱정없을것이라는 배심이 든든해졌습니다.

억남이는 보물열매를 품고 일터로 나가군 하였습니다. 보물열매를 품고 일하니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억남이는 고삿을 만나 앓아눕게 되었습니다. 열이 몹시 나면서 심하게 앓던 억남이는 닷새만에야 자리를 털고 일어나 눈에 나가보았습니다.

얹아놓기 전에 눈에 퍼던 거름무지가 그대로 쌓여있었습니다.

가래천 건너 정만이네 눈에는 벌써 거름을 퍼그나 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억남이의 마음은 조금해졌습니다. 은근히 마음속으로 정만이와 경쟁을 걸어오던 억남이였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얹고난 뒤라 기운도 예전같지 않은데 정만이만큼 일을 제끼려면 몇밤을 새도 모자랄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억남이는 령롱한 빛을 뿌리는 보물가래열매를 어루쓸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물가래열매에게 일을 부탁하고싶은 생각이 굴뚝같았으나 꼭 요긴할 때만 쓰라던 아버지의 당부가 생각나 이리궁싯, 저리궁싯하기만 하였습니다.

(한번 해보기라도 할가?...)

억남이는 구멍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아버지가 대준대로 노래를 불러보았습니다.

가래산의 보물열매  
귀한 열매야  
나를 나를 도와주렴  
어서 도와주렴  
...

그랬더니 이것 보세요.

열매안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아버지가 말한대로 푸른빛이 번쩍이는 커다란 문이 활짝 열리는것이였습니다.

순간 억남이는 저도 모르게 《야-》하고 환성을 올렸습니다.

글쎄 번개같이 내달릴 차비를 한 짐썰매며 발가는 보습, 김매는 제초기, 똑막이 삽날 등 별의별 농쟁기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섰으니 말이지요.

푸른빛을 뿜는 농쟁기들은 모양들도 희한한게 보통농쟁기들이 아니였습니다.

《제가 뭘 도와야 하나요?》

《제가 할일이 무엇이나요?》

저저마다 나서는 농쟁기들을 보며 《아니예요, 아니예요. 보물가래열매가 정말 일가 해서 해보았을뿐이에요.》하고 말하려던 억남이는 꿈꿈 갑자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 논들에 거름을 다 실어내지 못해서... 그걸 좀 도와줄수 있나요?》

그러자 짐썰매가 기다렸다는듯이 앞에 썩나서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는 보물썰매  
논벌에 나서면  
큰 산도 옮기지요  
랄랄 랄랄라

...



짐썰매에게 일을 부탁한 억남이는 정말 노래처럼 될가 하는 생각에 머리를 기웃거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일찍 벌에 나간 억남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처 나르지도 못했던 거름들이 모두 눈에 뿌려져있었던것입니다.

(야, 진짜 굉장한 보물열매로구나.)

억남이는 품에 간직한 보물열매를 다시한번 만져보았습니다.

가래천 건너편에서 일찍부터 거름을 나르던 정만이가 거름이 다 뿌려

진 억남이네 눈을 넘겨다보며 그의 번개같은 일숨씨를 칭찬하고 또 칭찬하였습니다.

억남이는 정만이에게 보물가래열매자랑을 하고싶었으나 꼭 참았습니다.

(보물가래열매에 대해 누구도 모르는게 더 좋지. 모두 내 일숨씨에 놀라는걸 좀 봐.)

그날 가래천가에서 정만이와 만난 억남이는 이 말, 저 말끝에 슬쩍 한마디 물어보았습니다.

《정만아, 너에게 혹시 네 말을 척척 들어주는 보물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니?》

《어떻게 하긴... 뒤집을 지고 논쪽에 척서서 〈여봐라, 당장 밭갈이를 다하거라. 어험.〉 하고 호통을 치지.》

정만의 너스레에 억남이는 눈물이 찢끔나도록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요긴할 때만 써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니?》

《차, 이런. 그렇게 아껴서야 무슨 보물이겠니? 써야 보물이지. 하지만 그런 보물이 옛이야기속에나 있겠는지... 그저 제힘밖에 믿을게 없어.》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정만이는 허리 한번 펼새없이 부지런히 농사일을 제껴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탕개가 풀린 억남이는 폭쉬고 며칠만에야 눈에 나왔습니다.

그제야 거름을 다 나르고 논갈이를 시작하는 정만을 넘겨다보며 억남이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정만이가 정말 수고를 단단히 하구나. 이제 내가 보물가래열매의 도움을 받아 하루밤새에 논갈이를 끝내면 얼마나 놀랄가.)

그날 저녁 억남이는 은은한 광채가 도는 보물가래열매를 앞에 놓고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보물가래열매를 요긴할 때 써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는데... 어떻게 할가?)

래일부터 논갈이를 하자고 생각하니 오금이 저려왔습니다.

귀가에는 써야 보물이라고 하던 정만의 말이 메아리가 되어 울려왔습니다.

(맞지 뭐. 보물을 옆에 놓고 허리가 아프

도록 일한다는게 말이 안되지.)

드디어 결심을 한 억남이는 보물가래열매 구멍에 대고 논갈이를 부탁했습니다.

하루밤새에 억남이가 보물가래열매의 도움으로 논갈이를 해치웠을 때 사람들의 놀라움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정만이는 입을 헤 벌리고 다물지 못하고 보는 사람들마다 억남이의 손을 붙잡고 번개손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손쉽게 논갈이를 해치운 억남이는 여러개의 낱을 가진 집게손에게 모내기를 부탁했습니다.

집게손의 도움으로 모내기를 거의 하다싶이 한 억남이는 허리를 쭉 펴며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번처럼 흔들흔들 모내기를 하기는 처음이군. 보물가래열매가 제일이야.》

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억남이네 논에도, 정만이네 논에도 풍년이 들었습니다.

보물가래열매를 앞에 놓고 억남이는 고맙다고 거듭거듭 절을 하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보물가래열매야, 래년에도 거름내기와 밭갈이, 모내기와 김매기, 가을걷이 이렇게 다섯번만 도와주면 정말 고맙겠다.)

한편 정만이는 풍년날가리를 마주하고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마철에 제때에 손을 쓰지 못해서 한배미의 곡식을 잃어버렸구나. 래년부터는 미리 손을 써서 올해같은 일이 없게 해야겠어.》

이렇게 정만이는 제힘으로 꾸준히 써심 들여 일을 했지만 억남이는 두해째, 세해째 여전히 보물가래열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으며 그것을 응당한것으로까지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농사가 첫해처럼 잘되지 못하고 그렇게 푸르싱싱하던 가래산 나무들도 해가 지날수록 점점 가지가 축 처지고 잎이 누래지며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억남이는 개울에 나가 고기잡이나 하고 그늘밑에서 낮잠이나 청하면서 이런것

에는 신경을 쓰지도 않았습시다.

어느날 흥얼거리며 가래벌에 나갔다가 대낮에 집으로 돌아오던 억남이는 언제나 벌에서 살며 일감과 씨름질하는 정만이를 보았습니다.

(정만이라도 나처럼 보물열매가 있으면 저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되겠는데...)

이날 집에 와서 보물가래열매를 꺼내들던 억남이는 눈이 화등잔만 해졌습니다. 보물가래열매의 광채가 그전처럼 명롱하지 못하고 퍼그나 작아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머리를 긁적이며 생각을 굴러보았으나 통알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요긴할 때만 쓰라던 보물가래열매를 너무 혹사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억남이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무렴 그쯤한데 작아지기까지 하면 그게 무슨 보물열매겠나...)

하지만 애써 부정하려고 해도 작년보다 퍼 나빠진 농사작황은 억남이의 마음을 자꾸만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억남이의 머리속에는 엇그제 저녁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억남이는 보물가래열매를 꺼내들고 네벌김매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때는 심상히 여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열매속 창고안의 농쟁기들의 그 신기한 푸른빛이 사그라진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해서 그러겠지.)

억남이는 이내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작아진 보물열매를 만지작거리며 집에서 낮잠을 자던 억남이는 때아닌 우뢰소리에 벌떡 일어나 가래벌로 달려나갔습니다.

한달동안 비 한방울 안 내리고 씨물쿠기만 하던 하늘이 그 봉창을 하려는지 폭우를 쏟아붓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줄기같은 소낙비가 어찌나 세차게 쏟아져내리는지 물이 잠간새에 도랑을 넘어서고 얼마후엔 사뭇치며 가래천뚝을 휘감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루이틀내에 보물가래열매에게 부탁해서 큰물대책을 세우려고 생각하고있던 억남이는 바빠맞았습니다.

이리뛰고 저리뛰며 터져나가려는 뚝을 막아나서던 억남이는 힘이 진해 숨을 헉헉 내쉬었습니다.

이러다간 여름내 자란 벼들이 큰물에 몽땅 녹아나고말겠다는 걱정에 급해난 억남이는 보물가래열매를 꺼내들었습니다.

어두운 저녁에만 쓰라던 보물열매를 이제라도 한번 써보자는것이었습니다.

(요긴하기야 지금이 제일 요긴할 때이지.)

억남이는 이렇게 자기를 위안하며 열매구멍에 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쇠악— 하는 소리와 함께 흰김이 물씬 피어나더니 보물열매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영?》

아무리 사방을 휘둘러보아도 보물가래열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물은 당장 뚝을 밀어내칠듯 사납게 소용돌이치는데 억남이는 《보물열매야— 어디 있니?》하며 어쩔바를 몰라 물속을 더듬었습니다.

이때 정만이가 위험을 무릅쓰고 억남이를 도우러 가래천을 넘어왔습니다.

정만이는 보물열매를 부르며 무어라고 녀두리질하는 억남이를 부여잡고 소리쳤습니다.

《야, 넌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있니? 빨리 흠가마니를 날라오라.》

그제야 제정신이 든 억남이는 허둥지둥 흠가마니를 가지러 달려갔습니다.

한참이나 역사질을 해서 겨우 뚝을 지키 이들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비발이 가늘어지며 물이 차차 줄어들어서야 두 젊은이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억남이는 없어진 보물가래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정만이에게 떠들떠들 털어놓았습니다.

보물열매를 저녁에 부러먹다못해 대낮에까지 부러려다가 잃어버린 봉변에 대해서도 죄다 말이지요.

억남이의 말에 너무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던 정만이는 슬그머니 일어나 자기 논의 뚝을 손질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억남이는 보물가래열매를 찾느라 밤깊도록 논과 개울가를 훑다가 날이 밝자 가래산으로 올랐습니다.

옛날 조상할아버지가 만났던 가래나무 할아버지라도 혹시 만날수 있을까해서였지요.

몇해만에 가래산에 올라온 억남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래나무잎들에 생기가 하나도 없고 가지들을 축 늘어뜨리고있는게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렇게 울창하던 가래산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똑똑한 가래열매 한알 없는 산을 돌아볼수록 억남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물가래열매야— 보물가래열매야—》

억남이가 아무리 애타게 소리쳐도 보물가래열매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껏이나 산판을 헤매던 억남이는 너무도 지쳐 어느 한 아름드리 가래나무밑에 쓰러지고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

억남이는 선뜩한것이 얼굴에 떨어지는 바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뜨고 올려다보니 낮선 할아버지 한분이 자기를 내려다보고있었습니다.

《정신이 좀 드느냐? 난 이 가래산의 가래나무할아버지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옷에는 크고작은 가래열매들이 좌락좌락 달려있었습니다.

《예? 가래나무할아버지요?》

억남이는 별떡 일어나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못해서 보물가래열매를 잃어버렸어요.》

억남이는 울먹거리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 보물가래열매는 이 산의 정기를 받아 신기한 힘을 내는 보물이였다. 너희 조상들이 이 땅을 제살불이처럼 아끼고 돌보아주기에 그게 너무 고마와 내가 그 보물을 주었지. 그런데 넌 그렇지 못하더구나. 그렇게 제 뼈심을 들이지 않고 보물의 힘만 바

라다니... 산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산의 정기를 받아 신기한 힘을 내는 그 보물열매가 어떻게 체구실을 할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그걸 찾느라 애쓰지 말고 어서 돌아가거라.》

가래나무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소리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할아버지—》

억남이는 울음섞인 목소리로 가래나무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터벌터벌 가래산을 내리는 억남이의 눈에 정만이가 멀찍이 보였습니다.

그는 큰 비에 패여진 곳들을 손질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난 늘 벌에 나가사는 정만이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던가. ... 보물가래열매가 없애고생을 한다고 그를 비웃지 않았던가.)

억남이는 정만이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는 억남이의 심정을 정만이는 다 이해했습니다.

《억남아, 어떻게 해서나 제 할일은 제가 뼈심들여 해야 하는거야. 제 힘으로 벌을 가꾸고 산을 가꾸어야 농사가 잘되고 산도 보물산이 될게 아니겠니.》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난 보물열매만 믿고 빈둥거리며 농사를 망치고 할아버지들이 보물산으로 만들어 넘겨준 가래산까지도 못쓰게 만든 건달군이였어. 진짜 보물열매는 제 힘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려는 너의 그 마음이였어.》

《알았으면 됐다. 우리 함께 우리의 힘으로 고향마을의 산과 들을 더 훌륭하게 꾸려가자꾸나.》

정만이의 말에 억남이도 새 결심이 어린 얼굴을 번쩍 들고 힘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후 억남이는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1년, 2년...

억남이와 정만이는 손을 맞잡고 구슬땀을 바쳐 고향마을을 기름지게 가꾸어갔답니다.